

“고물가·이상기후에 옷도 안 산다”... 의류 소비 급감

작년 의류지출 비중 ‘역대 최저’
‘가을폭염’ 계절 의류 구매 줄어
탄핵·참사 겹쳐 소비절벽 심각
온라인 확대...영세상인 영업난
“상권 회복 등 소비유인책 절실”

“온라인 시장에 밀리고 경기침체에 치이는 와중에 이상기후로 의류·신발 소비마저 급감하니 살아남기가 정말 힘드네요.”

고물가·경기침체 장기화 여파로 소비 위축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 변화로 인해 계절 의류를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의류 소매업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판매 병행이 어려운 영세 의류·신발 매장 상인들은 온라인쇼핑 시장에 한없이 밀리며 심각한 영업 부진을 겪고 있다.

13일 오전 찾은 광주 동구 충장로. 이곳에서 만난 신발 매장 사장 김기태(48)씨는 “충장로에서 신발 장사를 한 지 15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매장을 정리할지 고민 중”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 이후부터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지난해 말 불어닥친 계엄사태와 참사 등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꺾여 얼어붙으면서 올해도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



광주 김이강 서구청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및 공동형상점가 관계자들이 13일 서구 시청음식문화의거리 공동형상점가 일원에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어렵기 때문이다. ‘고물가에 옷부터 안 산다’는 말이 생겨날 만큼 의류·신발 소비가 줄어든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씨는 “연말 매출은 한 해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해 12월에는 정국

불안 등으로 인해 특수가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출이 하락했다”며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의류 지출부터 줄이니 매장을 정리하고 취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옷가게 사정은 더 심각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유례없는 폭염이 가을까지 이어져 가을옷 수요가 급감한 데 이어 겨울에도 푸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겨울옷 판매도 부진한 탓이다.

옷가게 상인 박모(51)씨는 “날씨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느낀 건 지난해 가을부터다.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에 사람들이 가을옷을 구매하지 않아 예년보다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가을이 짧으니 겨울옷을 사야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 같은데, 막상 겨울이 왔는데도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해 겨울옷 판매량도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주부터는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등 한파가 이어졌지만, 박씨는 “앞으로도 겨울옷 수요가 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1월은 원래도 비수기인데 올해는 경기침체에 이상기후, 탄핵 정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 이미 겨울이 절반가량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겨울 의류 매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 고물가·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이상 의류 소비가 갑자기 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가구당 의류 소비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290만7000원) 중 의류·신발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1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2면에 계속 나다운 기자

광주·여수공항도 콘크리트 둔덕 설치

국토부, 전국 공항 로컬라이저 점검
무안공항과 유사 “연내 개선 완료”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 참사 후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주공항과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도 무안국제공항과 유사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항행안전시설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내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3일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자 지난 2·8일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

설 현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점검 대상은 로컬라이저, 활공각시설(GP), 거리측정시설(DME), 전방향표지시설(VOR) 등 4종이다. 설치 위치와 재질, 형상, 성능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항행안전시설 성능 자체는 잘 유지되고 있고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했다.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과 기초대 9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공항과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도 무안공항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돼있으며 김해국제공항 2개소와 사천공항 2개소는 콘크리트로 기초대가 만들어졌다. 제주국제공항은 H형 철골구조로 돼 있어 국토부는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중 방위각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기종(B737-800) 101대를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랜딩기어와 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과 정비절차 준수 여부,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점검했다.

항공사별 사고 기종 보유 형태를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이 39대로 가장 많고 △티웨이항공(27) △진에어(19) △이스타항공(10) △에어인천(4) △대한항공(2) 순이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에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 동남아시아 ONE MART
- 유럽 Sunrise Supermarkt, K-Shop
-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